

제인 오스틴의 작품 안에 나타나는 여성과 현실의 문제: 샬럿 루카스와 제인 페어팩스를 중심으로

정 소 하

1.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이 완성한 여섯 편의 장편 소설들은 모두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서로 조금씩 처지는 다르지만, 『에마』(*Emma*)의 에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름의 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의 대쉬우드(Dashwood) 자매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했고,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의 베넷(Bennet) 자매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갈 데가 없어 질 형편이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류 사회로 편입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의 패니(Fanny)나 노처녀인 『설득』(*Persuasion*)의 앤(Anne), 그리고 특별히 모자란 구석은 없지만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노생거 에비』(*Northanger Abbey*)의 캐서린(Catherine)에 이르기까지 오스틴의 주인공들은 결코 현실의 어려움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또한 그 현실은 그들이 여성이기에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스틴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 자신의 주인공들을 위치시킨 것은 그녀가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해야 했던 문제들이 분명 오스틴의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안정을 얻어 그러한 현실 문제들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들의 감정과 그들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여러 과정이 비중 있게 다루지면서, 여주인공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크게 강조되지 않기도 한다. 결혼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실 극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현실이 결국 각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야기하는가가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오스틴은 몇몇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러한 현실 문제들을 더욱 분명히 다루고 있다. 『오만과 편견』의 샬럿 루카스

(Charlotte Lucas)와 『에마』의 제인 페어팩스(Jane Fairfax)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두 여성 모두 서로 다른 현실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현실은 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실 문제가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잘 드러남으로써 당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의 어두운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두 인물이 경험하는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그려내는 오스틴의 방식을 통해 작가가 당대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2.

『오만과 편견』의 샬럿 루카스는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대비를 이루며 지극히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여성의 결혼 문제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언급된다. 빙리(Bingley)가 네더필드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넷트 부인은 그를 딸들 중 하나와 엮으려는 계획에 몰두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여성들에게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가 그 이면에 드러난다. 또한 “재산이 많은 독신 남성”(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이라면 “그들 딸들 중 하나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써”(as the rightful property of some 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 5)여겨졌다는 화자의 서술은 여성에게 남성, 혹은 결혼이 “재산”(property)과 다름없이 여겨지던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샬럿은 친구인 엘리자베스와 매우 다른 결혼관을 보인다. 사실 이 둘은 친구이지만 샬럿은 엘리자베스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은 27살의 노처녀이다. 또한 매력 있는 외모에 생기발랄한 엘리자베스와 달리 “평범한”(plain) 얼굴에 특별한 매력을 지니지 못한 샬럿은 엘리자베스처럼 감정에 충실한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 “분별 있고, 총명한 여성”(sensible, intelligent young woman 19)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은 전적으로 운에 달린 거야.”(Happiness in marriage is a entirely a matter of chance 24)라며 “네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의 결점은 되도록 적게 아는 것이 좋아.”(it is better to know as little as possible of the defects of the person with whom you are to pass your life 24)라 말해 엘리자베스로부터 “그렇지만 그건 건전한 생각이 아니야. 너도 그렇다는 걸 알잖아. 너 스스로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것도.”(but it is not sound. You know it is not sound, and that you would never act in this way yourself 24)라는 질책을 듣는다. 그녀는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제인(Jane)의 행동을 지적하

면서 “열에 아홉은, 여자가 실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호의를 보이는 게 좋아.” (In nine cases out of ten, a woman had better show more affection than she feels 23)라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시집을 잘 가려는 것” (being well married 23)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엘리자베스는 살럿도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후에 살럿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시집 잘 가는 것”에 있음이 드러난다. 그녀는 콜린스(Mr. Collins)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다 거절당하고 실의에 빠지자 계획적으로 그의 말동무가 되어 주고 그를 위로해줌으로써 그에게서 청혼을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상대방에게 실제보다 더 큰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좋은 혼처를 얻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엘리자베스는 살럿의 결혼을 “가장 수치스러운 그림!” (most humiliating picture! 123)이라고 하기에 이른다. 엘리자베스의 눈에 살럿은 “세속적인 이익” (worldly advantage 123)을 위해 “더 나은 감정 모두” (every better feeling 123)를 희생한 것으로 여겨질 뿐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살럿의 선택은 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또한 오스틴은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살럿의 선택을 비난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설에서 여성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베넷가의 자매들도—그들 스스로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좋은 혼처를 얻지 못하면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콜린스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장차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나름의 “보상” (atonement 69)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집안의 장녀로서 노처녀이며 앞으로도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살럿에게 결혼은 그녀의 말대로 유일한 “대책” (provision)이기도 하다. “그것은 교육은 잘 받았으나 재산이 적은 여성에게 유일하게 명예로운 대책이었고, 아무리 행복할지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가난을 막아줄 가장 좋은 방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It was the only honourable provision for well-educated young women of small fortune, and however uncertain of giving happiness, must be their pleasantest preservative from want 120)라고 하는 서술은 단지 살럿의 생각만이 아니라 작가가 당시 여성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 인용한 소설 첫 페이지의 구절들이나 딸들을 부자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 하는 베넷 부인의 태도, 그리고 일종의 보상으로서 베넷가의 딸과 결혼하려는 콜린스의 생각은 사실 작가에 의해 회극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술에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지적은 당시 여성에게 있어 결혼의 문제가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엄연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또한 살럿

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루카스 집안의 반응도 그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콜린스의 사람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그녀의 부모들은 크게 기뻐하며 오로지 그의 “현재의 형편”(present circumstance 120)만을 고려하여 그 결혼을 허락한다. 또한 언니의 결혼으로 사교계 진출이 앞당겨진 여동생들과 노처녀 누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남동생들의 모습은 결혼하지 못한 여성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살럿의 결혼은 엘리자베스에게는 오로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녀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묘사들은 오스틴이 살럿의 선택을 비난하지만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살럿의 선택을 “이기심”(selfishness 133)이라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판단임은 살럿의 생각에서 드러난다. 콜린스와의 결혼을 선택한 살럿의 진심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그녀의 반응은 매우 침착한 어조로 드러나는데 그녀는 스스로의 결혼에 “대체로 만족”(general satisfactory)하며 “꽤 침착한”(tolerably composed 120) 태도를 보인다. “순전히, 아무런 사심 없이 잘 정착하려는 소망”(the pure and disinterested desire of an establishment 120) 때문에 결혼을 승낙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매우 기뻐하거나 자신의 욕망이 충족된 것에 행복을 느끼기 보다는 그저 현실에 적당히 만족할 뿐인 것이다. 또한 살럿이 무엇보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비난할 것을 알고 걱정하는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결혼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또 품을 수도 없었던 살럿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또한 그녀의 선택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콜린스의 캐릭터이다. 콜린스는 매우 희화화된 인물로 악한 인물은 아니지만 건디기 힘든 인물이다. 살럿이 그런 남자를 결혼상대로 선택했기에 그녀의 결혼이 오로지 현실적 안정만을 위한 것임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오스틴은 이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남성파 만나 결혼하는 다른 여주인공들과 살럿을 구분 짓고, 그녀를 통해 좀 더 현실 문제를 부각시킨다.

오스틴이 살럿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살럿을 비판하던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소설이 전개되면서 점차 변화되어 간다. 그녀는 이후에 위컴(Wickham)이 돈을 보고 킹 양(Miss King)에게 접근하는 것을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 여기서 화자는 “엘리자베스는, 살럿 때보다 판단력이 덜 명확해졌는지, 자립할 만한 수입을 얻으려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Elizabeth, less clear sighted perhaps in his case than in Charlotte's, did not quarrel with him for his wish of independence 147)라며 그녀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살럿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한 사

람을 위해 자신의 원칙과 고결함의 의미를 바꿔버려선 안돼.”(You shall not, for the sake of one individual, change the meaning of principle and integrity 133)라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역으로 이 말을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엘리자베스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컴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녀의 태도 변화가 비판할 만한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애초에 엘리자베스가 지닌 원칙이라는 것이 실제 현실 앞에서 언제나 굳건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샬럿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 현실의 문제는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샬럿을 온전히 비난하던 엘리자베스의 이전의 태도는 아직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의 말 중 “결혼에 있어서 돈을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 사이의 차이가 뭔가요? 어디까지가 신중함이고, 어디서부터가 탐욕인 건가요?”(what is the difference in matrimonial affairs, between the mercenary and the prudent motive? Where does discretion end, and avarice begin? 151)라는 질문에 작가 또한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듯 하며, 이 물음이 바로 오스틴 작품의 주제 중 하나이자 당시 현실의 난제였다. 엘리자베스도 바로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샬럿과 엘리자베스의 가치관 중에서 엘리자베스의 것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하나, 오스틴 스스로도 현실의 문제를 분명 인식하고 있었기에 엘리자베스의 가치관만을 옹호하고 다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동정할 수밖에 없는 샬럿의 캐릭터와 엘리자베스의 태도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냉정히 샬럿을 비난하던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그녀가 콜린스 부부를 방문한 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여전히 “불쌍한 샬럿!”(poor Charlotte! 209)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샬럿이 콜린스와의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음을 인정하며, 다아시에게도 샬럿의 선택이 “그녀가 한 일 중 가장 현명한 일”(the wisest thing she ever did)은 아닐지라도 “신중함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녀에게 매우 좋은 결혼”(in a prudential light, it is certainly a very good match for her 174)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소설 초반에 현실에 얽매이는 샬럿을 마냥 비판하던 엘리자베스는 샬럿의 선택이 온전히 그녀의 뜻이라거나 그녀에게 실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또한 샬럿 캐릭터를 통해 강조되는 현실의 문제는 이후 독자가 엘리자베스의 선택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엘리자베스는 분명 다아시에게 서서히 감정적으로 끌려 그와 결혼하게 되지만, 다아시가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의 펠벌리를 보고 그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를 잘 보여준 샬럿 캐릭터를 통해 엘리자베스의 결혼에서도 현실적 고려가 배제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샬럿을 통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의 선택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만과 편견』에서 샬럿 루카스는 엘리자베스와 대비되는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녀의 캐릭터 자체가 사려 깊고, 친구를 무척 생각하는 인물로 그려지기에 작가의 그녀에 대한 태도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콜린스와 살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려 하는 샬럿의 결혼을 그저 “가장 수치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했지만, 그 선택은 사실 그녀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한 샬럿의 선택은 오스틴의 여주인공들의 결혼에서 간과되는 측면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오스틴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혼을 통해 분명한 현실적 이득을 얻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이득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과 현실 문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하지만 샬럿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러한 이득을 위해 결혼하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오스틴이 여성의 결혼에서 현실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있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오스틴은 샬럿의 결혼을 결코 현명한 선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분명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써 그려내고 있다.

3.

이처럼 주인공과 대비를 이루며 여성의 현실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에마』의 제인 페어팩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에마와 동갑이면서 마을 내에서 같은 공동체에 속해있기에 더욱 주인공과 대비되는 인물이다. 제인은 태어나는 군인의 딸로 태어나 좀 더 나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불행한 미래를 맞닥뜨리게 된 여성이다. 캠벨 대령(Colonel Campbell)의 도움으로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보다 훨씬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상류 사회에서 성장해온 제인이기에 그녀의 암울한 현실은 더욱 부각된다. 그리고 에마보다 사회적인 조건은 훨씬 열악하지만 여러 뛰어난 소양을 갖춘 제인은 에마의 묘한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설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제인은 조만간 가정교사가 되어야 할 처지임이 드러나는데, 그녀가 가정교사가 되는 것은 “그 불운의 날”(the evil day 154), “희생”(sacrifice 155), “영원한

참회와 고행의 길”(to penance and mortification for ever 155) 등 매우 부정적인 어감으로 서술된다. 그녀는 살럿 루카스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이다. 살럿은 노처녀가 되어 집안에 짐이 될지언정 직접 생계를 해결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제인은 가진 재산도 거의 없고, 그녀를 부양해줄 남자 가족도 없기에 직접 일을 해야 하고, 그녀의 앞에는 당시 중산층 여성에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직업인 가정교사로서의 미래가 놓여 있을 뿐이다. 즉, 그녀 또한 살럿과 다른 종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녀에게도 또 다른 대안으로써 결혼이 있겠지만, 프랭크 처칠(Frank Churchill)과의 약혼은 소설의 후반에야 밝혀지며, 에마는 계속해서 제인의 실현 불가능하며 은밀한 로맨스를 상상하고, 나이트리(Mr. Knightley)도 그녀에 대한 애정을 부정하기에 독자의 입장에서 그녀의 결혼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통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녀가 소설 전반적으로는 오스틴의 다른 주인공들과 달리 어두운 여성의 현실을 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설에서 제인이 가정교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된다. 하이베리에 막 도착한 프랭크에게 “프랭크, 너에게 일러두어야겠구나; 여기서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해.”(I must give you a hint, Frank; any want of attention to her here should be carefully avoided 182)라며 제인을 바로 방문하라고 하는 웨스턴(Mr. Weston)의 말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그녀를 배려하는 것은 이웃으로서 온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제인은 이러한 시선을 잘 알기에 더욱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한다. 그리고 제인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제인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걸어오는 담담하지만 실제로는 무척 비참하게 생각하기에 그녀에 대한 연민은 더욱 커진다. 그녀가 가정교사로서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몸뚱이는 아니지만, 인간의 지성을 사고파는 사무실”(office for the sale—not quite of human flesh—but of human intellect 279)이 있다고 하며, “가정교사-매매”(governess-trade 279)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원치 않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가정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팔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은 그저 “희생되는 자”(victim)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가정교사가 될 거라면 부유한 집으로 가느냐의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오히려

부유한 가정으로 갈수록 스스로의 “굴욕감”(mortification 280)만 커질 것이라고 하는 제인의 말은 그녀가 챔벨가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언제나 무거웠음을 암시한다. 사실 이러한 제인의 말들은 그녀가 프랭크와 비밀 약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므로, 실제로 그녀가 가정교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인의 매서운 말들이 꼭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서 하는 말들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던 여성으로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하는 것임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사실 가정교사로서의 제인의 미래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와중에 쉽게 간과되는 인물이 바로 웨스턴 부인(Mrs. Weston)이다. 테일러 양(Miss Taylor)으로서 하트필드에서 16년간이나 가정교사를 한 그녀는 제인이 생각하는 암울한 가정교사의 모습과 사뭇 다르기에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웨스턴 부인은 분명 제인 페어팩스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다른 주요한 등장인물들의 과거 내력이 자세히 소개되는 것과 달리 웨스턴 부인에 대해서는 그녀가 에마의 가정교사이자 친구로서 오랫동안 하트필드에 머물렀다가 웨스턴과 결혼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녀의 결혼을 아쉬워하는 우드하우스(Woodhouse) 부녀의 감정은 잘 드러나는 한편, 결혼하여 하트필드를 떠나는 그녀의 심정은 에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염려된다는 점 말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 우드하우스 부녀는 그녀의 결혼을 아쉬워하지만, 실제로 웨스턴 부인에게 그 결혼은 자신의 힘겨운 현실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음에도 그런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런 점이 다소 드러난다. 나이 들리는 우드하우스 씨에게 에마의 생각을 대변하듯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혼이 얼마나 테일러 양에게 이로운 일인지 알 겁니다; 그녀는 테일러 양 정도의 인생의 시기에 스스로의 집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편안한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보다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순 없겠죠. 테일러 양의 친구라면 모두들 그녀가 행복하게 결혼하게 된 것을 기뻐할 겁니다.”

“But she knows how much the marriage is to Miss Taylor’s advantage; she knows how very acceptable it must be at Miss Taylor’s time of life to be settled in a home of her own, and how important to her to be secure of a comfortable provision, and therefore cannot allow herself to feel so much pain as pleasure. Every friend of Miss Taylor must be glad to have her so happily married.”(13)

그러므로 아무리 테일러 양이 에마의 가정교사로서 행복했다라도 결혼해서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6년간 가정교사를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웨스턴 부인은 이미 결혼할 시기가 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웨스턴처럼 재혼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마땅한 혼처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계속 하트필드에 남았다고 했을 때 에마가 결혼하고 우드하우스 씨가 죽었을 경우 그녀의 미래 또한 밝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웨스턴 부인이 묘사됨에 있어 그녀가 처한 현실적 문제가 다소 가려지면서 훌륭한 안주인, 상냥하고 자애로운 친구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인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교사의 어두운 일면이 웨스턴 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정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제인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와중에 웨스턴 부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도 이 두 여성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스턴 부인이 제인과 나이틀리의 결혼을 바란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인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추측하게 해준다. 에마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매우 수치스러우며 불명예스러운 결합”(a very shameful and degrading connection 210)이라고까지 하는 결혼을 끝까지 가능하다고 보려는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다른 이들을 짝지어 주려는 에마의 것과는 다르다. 웨스턴 부인은 “그가 그들에게(베이츠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마 제인에게 이처럼 훌륭한 집을 주는 걸 거야.”(perhaps the greatest good he could do them, would be to give Jane such a respectable home 210)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웨스턴 부인이 제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녀는 제인이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결혼을 통해 정착하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이틀리 스스로가 제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음을 밝히고 난 후에도 웨스턴 부인이 그 둘이 맺어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그 결합을 단순히 예상했던 게 아니라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인 페어팩스는 이처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여성임에도 스스로 매우 불행하게 생각하는 가정교사로서의 미래가 그 뒤에 어른거리는 인물이다. 에마는 이러한 그녀를 질투하고, 그녀에 대한 부당한 상상을 하기도 하며, 약혼자인 프랭크 조차 그 모욕적인 상상에 장단을 맞추어 사회적 약자인 제인에게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인공인 에마가 그만큼 신경 쓰는 인물이기에 제인은 소설에서 나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에마의 질투는 그녀와의 극명

한 대비를 더 부각시킨다. 아직 내적인 성숙이 부족하지만 모든 외적 조건을 완벽히 갖춘 에마와 내적인 성숙 또한 갖춘 듯하지만 현실 앞에 무기력한 제인의 대비는 두 인물의 성격 차이와 더불어 냉혹한 현실의 힘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인이 현실의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그녀의 비밀 약혼이 소설의 후반부까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에마와 제인 간의 명확한 대비와 주위 사람들의 끝없는 배려와 연민의 태도, 그리고 그런 와중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제인의 모습은 모두 그녀의 어두운 미래와 그런 미래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한 현실에 주목하게 한다. 만일 그녀와 프랭크의 관계가 초반부터 분명히 드러났다면 그러한 측면은—웨스턴 부인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쉽게 간과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스틴이 다른 주인공들의 경우와 달리 제인과 프랭크의 로맨스를 소설의 후반에서야 편지 몇 장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제인과 프랭크의 관계는 샬럿과 제인의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두 여성은 모두 자신들을 억압하는 현실의 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것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두 여성이 자신들이 인식한 냉혹한 현실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샬럿은 평범한 노처녀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에서 스스로가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전혀 애정을 느끼지 않는 콜린스와의 결혼을 택했고, 자신이 바라던 생활의 안정을 얻었다. 반면 제인은 프랭크와의 비밀 약혼 상태에서 그의 태도에 괴로움을 느끼자 그를 사랑함에도 자기가 먼저 그 약혼을 파기하고 가정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녀에게는 어떻게든 현실 안에서 최대한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으며, 그녀에게 결혼이란 샬럿처럼 현실적 방책으로써가 아니라 상호간의 애정에 기반한 것일 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즉, 똑같이 현실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두 여성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두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는 무척 다르다. 이런 점에서 제인의 태도는 오히려 샬럿보다는 엘리자베스 베넷의 것에 더 가깝다. 그리고 샬럿의 선택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엘리자베스의 태도를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오스틴은 샬럿보다 제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해준다. 여러 어두운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오스틴의 다른 주인공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결혼에 성공하는 제인의 모습은 이런 면에서 그녀의 태도에 대한 오스틴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4.

에마는 소설에서 자신의 결혼관을 밝히며 “마음 넓은 사람들에게 독신 생활을 경멸할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건 오로지 가난이야!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지닌 독신 여성은 분명 우스꽝스럽고 불쾌한 노처녀가 될 거야!” (it is poverty only which makes celibacy contemptible to a generous public! A single woman, with a very narrow income, must be a ridiculous, disagreeable, old maid! 83)라는 말을 한다. 여기에 묘사된 독신 여성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에마를 통해 우리는 위의 독신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맞을 수도 있었던 샬럿과 제인을—그리고 웨스턴 부인까지도—떠올릴 수 있다. 그녀들을 그러한 미래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바로 결혼이며, 남성들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현실인 것이다. 여성을 저러한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오스틴은 계속해서 자신의 여성 인물들에게 짝을 찾아준다. 그러나 동시에 오스틴의 소설에서 이처럼 여성을 어두운 현실로부터 구원하는 결혼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성들이다. 구제불능의 성격을 지닌 콜린스는 샬럿이라는 최고의 현명한 아내를 만난 것이며 모나지 않은 성격이지만 다소 경박스러운 면을 지닌 프랭크는 진중한 제인을 통해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샬럿과 제인은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여성으로서의 제한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오스틴 소설 중에서 가장 밝은 분위기를 지닌 이 두 소설에서도 이 여성들을 통해 어두운 현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오스틴은 단순히 여성의 현실을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현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중요하게 다뤘다. 여기에 현실을 보는 오스틴 스스로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안에서의 두 인물의 모습을 그들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현실의 문제로 그려내려 했던 오스틴의 태도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usten, Jane. *Emma*. Ed. Fiona Stafford. London: Penguin, 2003.
 _____. *Pride and Prejudice*. Ed. Vivien Jones. London: Penguin, 2003.

ABSTRACT

Women's Reality in Jane Austen's Novels: A Study on Charlotte Lucas and Jane Fairfax

Chung So Ha

Jane Austen always deals with women's reality in her novels. None of her heroines, except for Emma, is free from their hard realities of life as a woman. However, since most of her heroines naturally overcome those hardships by marriage, we can find out how woman's reality affects one's life more obviously through other female characters such as Charlotte Lucas of *Pride and Prejudice* and Jane Fairfax of *Emma*. Charlotte's marriage presents the situation of a woman who does not have other choice but to marry, even she does not love the man. To her, marriage is the "only honourable provision," and it is the only way to escape being a burden to her family. Although Elizabeth, at first, harshly criticizes Charlotte's decision, the novel shows her gradual change of opinion. Also, Austen portrays Charlotte's choice as something that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social context. Like Charlotte, Jane Fairfax makes contrast with the heroine, and she appears as a woman who should live as a governess inevitably. Jane's calm and composed air, and her neighbor's sympathetic attitude toward her emphasizes Jane's gloomy future as a governess. She does not want to be a governess, but there is not other way to earn her living, unless she marries. Moreover, Austen focuses on how these women react to their reality, and in this regard, Charlotte and Jane show some difference. Thus, admitting the harsh realities of women that limit their life, Austen tries to present the more valuable attitude to react to those realities.

Key Words woman's reality, marriage, money, provision, social context.